



예언자의 시현이 경전의 일부로 채택되다

지난 날 교회 대관장이 받았던 두 계시가 지난 4월 3일 토요일 오후 총회에서 교회 회원의 거수 지지로써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절로 구분되어 값진 진주의 일부가 될 계시는 1836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과 1918년 10월 3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본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시현이다.(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성도의 벗 본문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상파울루 신전 기공식

지난 3월 20일 토요일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는 남미 최초의 신전을 짓기 위한 기공식이 있었다.

십이사도 보조이며, 지역 관리자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가 이 기공식을 감리했다. 남미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거행된 이 기공식에는 2,0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남미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질 새롭고 위대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남미 최초의 신전이 건립될 이 성스러운 장소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우리는 신앙을 더욱 강화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우스트 장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신전의 정문에는 ‘주님의 집’ 그리고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질 것입니다. 남미에서 성스러운 건물에 이러한 말이 새겨지는 것은 처음이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여 승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45분 동안 진행된 이 기공식에는 파우스트 장로 외에 십이사도 지역 대표 몇 분과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100명의 젊은 남녀로 구성된 상파울루 스테이크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다.

기도를 드린 후 파우스트 장로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신전의 해의 왕국의 방이 될 지점으로 걸어 갔다. 기공식 동안 그곳에서 있던 대부분의 회원들은 파우스트 장로와 지도자들이 걸어 오자 악수를 나누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기공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상파울루 신전 기공식, 1976년 3월 20일”이라고 새겨진 특별한 삽이 마련되었다. 파우스트 장로가 맨처음 삽질을 하고 나서 세 분의 지역 대표가 삽질을 하였다.

4명의 총관리 역원 임명

지난 4월 3일에 가진 제146회 연차 대회와 2차 일반 총회에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4명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세계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교회 선교 활동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쳐 봉사할 4명은 다음과 같다.

—야콥 드예거, 53세, 니메겐, 네델란드 출신. 네델란드 최초의 총관리 역원인 그는 1972년부터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해 왔다.

—엠 린셀 밸러드 이세, 47세, 솔트레이크시티 출신. 현재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41세, 아이다호 폴스, 아이다호 출신.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칼로스 이 애시, 49세, 프로보 유타 출신. 십이사도 지역 대표이며, 교회 관리 감독단 집행 역원이다.

지난 10월, 김볼 대관장은 전세계 교회 사업, 특히 선교 분야의 사업을 돕기 위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점차 70명으로 조직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최초의 정원회 회원 3명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벨기에 태생인 독일인 프랑크푸르트의 찰즈 에이 디데이, 칠레 산티아고 선교부장인 윌리엄 로즐 브래드포드, 그리고 애리조나 홀브루크 선교부장이며, 나바호 인디안인 조지 패트릭 리 박사.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일곱 명이 정원회를 관리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주요 역할은 전세계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선교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는 것이다. 정원회 회원은 또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지시를 받아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야콥 드예거는 1923년 1월 16일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곳에서 상학과 어학을 공부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홀랜드를 점령한 독일군의



야콥 드에거



엠 렛셀 밸러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칼로스 이 애시

강제 노예 노동을 피하여 2년 이상 숨어 살면서 어학에 전념하였다. 그는 모국어인 화란어 외에 불어, 독어, 영어, 서반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는 유럽에 주둔한 캐나다 군의 통역관으로 일했으며, 후에 화란 원정군의 후생 장교로서 화란령 동인도(지금의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했고, 국왕이 주는 "평화 훈장"을 받았다.

1950년 홀랜드로 돌아와 필립스 전자 회사에 입사한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에 파견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1954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비어 림과 결혼하였으며, 현재 슬하에는 아들 로버트 미카엘과 딸 오드리 이네즈를 두고 있다. 후에 그는 토론토, 멕시코시티, 이스탄불 등지에서 각각 근무한 후, 모국에 돌아갔으며, 현재 그는 필립스 형광등 회사의 판매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회 직책으로는 토론토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좌, 멕시코시티에서 주일학교 회장, 니메겐에서 지부장, 네델란드 선교부장단 보좌 등을 역임했다.

엠 렛셀 밸러드 이세는 1928년 10월 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바바라 보우엔 밸러드 부인도 역시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이다. 슬하에는 클라크 렛셀, 스테이시, 브린 홀리, 멜리어, 태머라, 크레이그 등 7남매가 있다.

밸러드 장로는 1974년 이래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장으로 봉사해 왔다.

그는 영국 선교부에서 2년간 선교사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선교부장단 보좌로 봉사하는 등의 오랜 교회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또한 할러데이 제 12와드와 모뉴먼트 파크 제

13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마운트 올림퍼스 스테이크와 모뉴먼트 파크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 제사정원회 고문으로도 봉사한 바 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는 1934년 6월 17일에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진 새빈과 결혼하여 낸시 진, 엘리자벳, 매릴린, 제인, 게일, 존 에녹, 스잔, 토마스 새빈 등 8 남매를 두고 있다.

그로버그 장로는 통가 선교부를 관리하고 돌아 온 직후, 1969년에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아이다호 폴스 제26와드 감독으로 5년간 봉사했고, 교회 보조 조직의 여러 가지 역원 및 교사직을 역임했으며, 스테이크 선교사와 복음 선교사로도 봉사한 바 있다.

칼로스 이 애시는 1926년 6월 12일, 유타주 밀라드 카운티의 서덜랜드에서 태어났다. 애시는 유타주 본토 출신인 콜린 웹과 결혼하여 마시언, 제임즈, 마커스, 브렌트, 클레어, 티모시, 칼린 등 7남매를 두었다.

애시 장로는 3년간(1970~73) 텍사스 노스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밖에 그는 주일학교 본부 임원, 사우스 코튼우드 제6와드의 감독, 사우스 코튼우드 스테이크와 롱비치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한 바 있다.

텍사스에서 돌아 온 직후 그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였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의 부학장직을 맡아 보다가 관리 감독단 집행 역원이 되었었다.

휠체어 위의 투지, 김 석재 형제

지난 3월 27일자 처치 뉴스 지에는 불굴의 용사 김 석재 형제의 이야기가 실렸다.

33세의 김 형제는 1968년에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서 생활해야 했으나 세계 휠체어 올림픽에 두 번 출전하여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 형제는 1965년 공수 부대에 입대하였다. 2년 후 대학 시절에 만났던 현재의 부인과 결혼한 다음 곧 월남전에 출전하였다. 월남에서 복무한 후 1968년 귀국하여 김포 공수 특전단에 근무하게 되었다.

얼마 후 동해안 부근의 무장 간첩 출현으로 그곳에 공수되어 싸우던 중 5발의 총탄을 맞았는데 그 중 한 발을 척추 하부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미군 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고, 한국 병원에서 다시 1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였다.

탁월한 용기를 보인 그에게 박 정희 대통령은 아파트와 많은 보상금을 하사했다.

그 이후에도 그의 불굴의 용기와 투지는 많은 영광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1974년 런던 휠체어 올림픽에서 그는 권투, 역도, 사격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1972년 문헌 휠체어 올림픽에서 그는 탁구와 투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7년간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각종 경기에서도 김 형제는 역도와 탁구 부문에서 금메달 여러 개를 획득한 바 있다. 그는 금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수영과 역도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그는 지난 1975년 11월 8일 침례를 받아 회원이 되었다.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특별 모임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는 3월 27일 오후 5시부터 제 1와드에서 최 옥환 부장님의 감리하에 창립 13주년 기념 특별 모임을 가졌다. 예년과 달리, 각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덴마크, 스페인, 일본 등등, 문화의 정수 시간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 여러 나라의 풍습, 의상, 민속 무용 등을 소개하여, 참으로 상호부조회를 통한 범세계적인 자매애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이보다 앞서 오후 3시부터는 스테이크 산하 각 와드 및 지부가 참여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한 바자회가 같은 곳에서 열렸다.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번 바자회는 주로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물건이 출품되었다.

부산 지방부 상호부조회에서 3월 16일에 창립 기념 특별 모임을 가졌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상호부조회 마크가 든 기념반지를 만들었고, 부산의 5개 지부가 합창 경연 대회를 벌였는데 서면 지부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스테이크 복지 농장 일 모임 시작되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서울 스테이크 산하 200여명의 회원이 복지 농장(판교 소재)에 모여 일 모임을 가졌다.

땀을 흘리며 보리밭 김매기를 하고, 과수원 묘목을 옮겨 심으면서 회원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공휴일에 와드 소품을 취소하고 복지 농장 일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과 감독단께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